WEBVTT

00:00:08.294 --> 00:00:11.230
블로그 브랜딩 강사 성창열입니다.

00:00:14.689 --> 00:00:17.927
지금까지 콘텐츠 많이
발행해 봤나요?

00:00:18.613 --> 00:00:23.546
강좌 내용을 따라오고
지속적으로 블로그 운영에

00:00:23.574 --> 00:00:27.446
관심을 기울였다면 어느 정도
콘텐츠가 쌓였을 텐데요.

00:00:27.546 --> 00:00:31.398
여기에 욕심을 내서 자기가
직접 촬영한 이미지를

00:00:31.498 --> 00:00:34.071
자신의 콘텐츠에 넣고자 하는 분들도

00:00:34.171 --> 00:00:36.748
상당수 생겼으리라고 생각합니다.

00:00:37.366 --> 00:00:43.665
하지만 직접 촬영을 해 보면 생각만큼
쉽지 않다는 걸 느낄 텐데요.

00:00:43.765 --> 00:00:47.868
저 역시 블로그를 운영하면서
초기 이미지 제작에

00:00:47.968 --> 00:00:50.333
상당히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.

00:00:50.433 --> 00:00:52.036
그래서 준비해 봤습니다.

00:00:52.136 --> 00:00:57.464
제가 어떻게 사진을 찍었고 지금은
어떻게 찍고 있는지 말이죠.

00:00:59.332 --> 00:01:03.554
블로그는 어떤 글보다 이미지가 주는

00:01:03.654 --> 00:01:06.393
영향이 상당히 크다고
할 수 있겠습니다.

00:01:09.274 --> 00:01:13.371
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
감이 잡히나요?

00:01:13.902 --> 00:01:17.199
제가 2009년 당시
블로그를 운영하면서

00:01:17.299 --> 00:01:21.503
처음 제품 리뷰라는 것을
진행하며 촬영한 이미지입니다.

00:01:22.845 --> 00:01:27.083
저는 알고 있어서 어떤
제품인지 대략 감은 오지만

00:01:27.183 --> 00:01:31.924
처음 보는 분들은 사뭇 고개를
갸우뚱할 것 같은데요.

00:01:33.611 --> 00:01:38.545
블루투스 이어폰을 핸드폰
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입니다.

00:01:38.645 --> 00:01:42.119
이때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
제품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

00:01:43.800 --> 00:01:47.189
보이는 것처럼 해상도나
퀄리티는 말할 것 없이

00:01:47.289 --> 00:01:48.935
볼품없는 수준인데요.

00:01:50.271 --> 00:01:52.801
2009년 7월 사진입니다.

00:01:52.901 --> 00:01:56.563
기억한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를
참고해 보기 바랍니다.

00:01:56.685 --> 00:02:00.438
아 참, 또 하나 이미지
안에 삽입되어 있는

00:02:00.899 --> 00:02:04.149
Photo By. yeol's라는
로고의 변화도

00:02:04.249 --> 00:02:08.921
어떻게 진화되는지도 함께
감상해 보면 좋겠습니다.

00:02:11.015 --> 00:02:14.498
이 이미지는 2010년
7월 딱 1년 뒤에

00:02:14.598 --> 00:02:16.855
제가 블로그에서 발췌한 사진입니다.

00:02:17.956 --> 00:02:22.498
보이는 것처럼 앞서 어떤
제품인지 구분이 힘들 정도의

00:02:22.598 --> 00:02:28.012
수준이 낮은 사진이었다면
그보다는 조금 나아진 이미지

00:02:28.112 --> 00:02:33.036
그리고 조금 더 간결해진
워터마크를 볼 수 있겠습니다.

00:02:35.606 --> 00:02:42.189
그리고 1년 뒤 제가 제품뿐만 아니라
소품을 활용하게 되었습니다.

00:02:42.722 --> 00:02:48.213
이렇듯 집에 있는 액자 그리고
배경지, 잡지 같은 소품을

00:02:48.322 --> 00:02:53.257
활용하면 조금 더 구성진
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.

00:02:56.909 --> 00:02:59.570
2013년 9월에
촬영한 사진이고요.

00:02:59.670 --> 00:03:04.733
지금 이 사진은 헤드폰과 아이패드,
컵 등의 소품을 활용했고요.

00:03:04.833 --> 00:03:09.787
또 하나 배경지로 흰색의
아크릴판을 덧댔다는 점

00:03:09.887 --> 00:03:11.727
참고해 보기 바랍니다.

00:03:13.065 --> 00:03:16.995
이때 당시만 해도
스마트폰이 아닌 DSLR

00:03:17.095 --> 00:03:20.659
그러니까 초창기 DSLR
카메라를 이용해서

00:03:20.759 --> 00:03:23.792
촬영을 했다는 점도 알아두고요.

00:03:25.507 --> 00:03:29.839
이 사진은 2015년 4월 가장
초창기에 찍었던 사진입니다.

00:03:30.489 --> 00:03:35.438
몰스킨이라는 수첩과
갤럭시S6라는 스마트폰을

00:03:35.597 --> 00:03:37.817
함께 놓고 찍은 사진이고요.

00:03:38.635 --> 00:03:41.560
이때부터 양옆에 조명을 활용함으로써

00:03:41.660 --> 00:03:45.289
보다 밝고 선명한 이미지를
얻을 수 있었습니다.

00:03:45.389 --> 00:03:50.138

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
로고 역시 긴 텍스트가 아닌

00:03:50.238 --> 00:03:54.172
간결한 로고 이미지로
변한 걸 확인할 수 있겠죠.

00:03:54.712 --> 00:03:59.821
많은 분이 고가의 DSLR 혹은
미러리스 카메라를 구입하는 것보다

00:03:59.921 --> 00:04:04.178
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
활용하길 원할 겁니다.

00:04:04.278 --> 00:04:08.081
물론 최근에 출시된 스마트폰은
콤팩트 디지털카메라에

00:04:08.221 --> 00:04:12.038
버금가는 화소와 퀄리티를
자랑하기 때문에

00:04:12.138 --> 00:04:16.434
충분히 블로그를 하는 데
있어서 스마트폰 카메라도

00:04:16.534 --> 00:04:19.743
멋진 역할을 해낸다고
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.

00:04:20.836 --> 00:04:24.222
하지만 스마트폰
카메라로 촬영을 할 때

00:04:24.322 --> 00:04:26.794
몇 가지 체크해야 할
포인트가 있습니다.

00:04:27.191 --> 00:04:29.122
첫 번째가 노출입니다.

00:04:29.222 --> 00:04:33.688
보이는 화면은 제가 같은
공간, 같은 풍경을

00:04:33.788 --> 00:04:36.798
똑같은 스마트폰으로
촬영한 사진입니다.

00:04:37.179 --> 00:04:39.489
다만 노출만 달리 했을 뿐이죠.

00:04:40.428 --> 00:04:45.152
하나의 이미지는 초점을 바닥에
그리고 하나의 이미지는

00:04:45.252 --> 00:04:51.701
초점을 하늘에 두고 찍은
사진인데 보이는 사진 중

00:04:51.857 --> 00:04:53.828
어떤 게 더 마음에 드나요?

00:04:54.269 --> 00:04:58.947
아마 대부분 분들이 오른쪽 이미지에
손을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.

00:04:59.538 --> 00:05:04.369
또한 격자라는 기능이 있는데요.

00:05:04.641 --> 00:05:09.196
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하면
처음에는 왼쪽 화면과 같이

00:05:09.296 --> 00:05:12.426
아주 밋밋한 카메라 화면을
보게 될 건데요.

00:05:13.141 --> 00:05:17.401
옵션 기능 중 격자라는
옵션을 사용하게 되면

00:05:17.501 --> 00:05:22.477
수평 내지 보이는 것처럼
피사체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

00:05:22.619 --> 00:05:26.535
도와주기 때문에 처음
촬영에 상당히 도움 되는

00:05:26.635 --> 00:05:28.155
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
00:05:30.826 --> 00:05:35.727
그리고 많은 분이 어디서나 팡팡
터뜨리는 플래시가 되겠는데요.

00:05:36.423 --> 00:05:39.325
스마트폰은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

00:05:39.483 --> 00:05:41.906
플래시를 터뜨리고 끌 수 있습니다.

00:05:42.809 --> 00:05:47.356
하지만 어둡다는 이유로
이런 식으로 플래시를 터뜨린다면

00:05:47.456 --> 00:05:53.422
이질감이 넘치는 피차체 그리고
결과물을 얻게 될 겁니다.

00:05:53.522 --> 00:05:57.424
아무리 어둡다고 한들
피사체가 그 환경에 어울리고

00:05:57.524 --> 00:06:01.281
자연스럽게 녹아든다고
한다면 굳이 플래시를

00:06:01.381 --> 00:06:03.565
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

00:06:04.328 --> 00:06:06.216
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.

00:06:06.316 --> 00:06:07.019
뭘까요?

00:06:07.082 --> 00:06:11.948
바로 스마트폰 사진작가 한창민님의
이야기를 잠깐 해 볼까 합니다.

00:06:12.048 --> 00:06:15.826
앞서 말씀드렸던 스마트폰
체크 포인트 아직 잊지 않았죠?

00:06:16.551 --> 00:06:22.460
지금 한창민님도 똑같은
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들을 모아서

00:06:22.560 --> 00:06:25.829
자신만의 사진 에세이 그리고
전시회를 열 정도로

00:06:25.929 --> 00:06:29.695
상당한 스마트폰 카메라
사랑에 빠진 분인데요.

00:06:30.392 --> 00:06:36.064
나는 찍는다 스마트폰으로, 한창민
사진전이라는 내용의 책입니다.

00:06:36.164 --> 00:06:40.102
제목은 지난 일 년
그러니까 지난 일 년 동안

00:06:40.202 --> 00:06:43.761
스마트폰으로 촬영한
이미지를 모으고 모아서

00:06:43.861 --> 00:06:46.118
한 권의 사진전을 냈다고 합니다.

00:06:46.218 --> 00:06:51.170
이렇듯 굳이 고가의 DSLR,
미러리스 카메가 아니더라도

00:06:51.270 --> 00:06:54.901
자신이 지금 손에
쥐고 있는 스마트폰도

00:06:54.973 --> 00:06:58.052
충분히 훌륭한 카메라가
될 수 있습니다.

00:06:58.770 --> 00:07:02.486
가장 좋은 방법은 중요한
체크 포인트가 아니라

00:07:02.586 --> 00:07:07.510
직접 밖에 나가 촬영을 해 보는
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

00:07:08.593 --> 00:07:11.737
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
찍고 있습니다.

00:07:13.503 --> 00:07:17.334
소소한 소품 마찬가지만 있어도
좋은 사진이 될 수 있다는 걸

00:07:17.434 --> 00:07:19.286
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

00:07:21.832 --> 00:07:25.464
지금 보이는 사진은 어떻게
촬영한 사진일까요?

00:07:25.564 --> 00:07:31.833
제가 반대로 어떻게 찍은
사진일까요라고 많은 분께 물으면

00:07:31.933 --> 00:07:35.978
대부분 분들이 잘 모르겠다는
반응을 보이곤 하는데요.

00:07:36.059 --> 00:07:40.098
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
누구나 집에 가지고 있는

00:07:40.248 --> 00:07:43.113
소품을 활용해서 촬영한
이미지입니다.

00:07:44.494 --> 00:07:46.057
대략 감이 오나요?

00:07:49.405 --> 00:07:53.990
집에서 쓰지 않는 스탠드 두 개
그리고 달력을 이용한 이미지입니다.

00:07:58.341 --> 00:08:02.010
그렇다면 이 이미지는 어떻게
촬영한 이미지일까요?

00:08:03.471 --> 00:08:07.156
이 역시 잘 모르겠다는
반응이 대부분이었는데요.

00:08:09.047 --> 00:08:10.225
감이 오나요?

00:08:11.973 --> 00:08:17.449
동일한 달력을 그냥 거꾸로
뒤집어서 쓰지 않는

00:08:17.549 --> 00:08:20.017
스탠드 두 개를 활용한
사진이 되겠습니다.

00:08:20.971 --> 00:08:26.854
처음에 이렇게 봤을 때는 블로그
그러니까 웹에서 사용하기에는

00:08:26.954 --> 00:08:29.409
전혀 손색없는 이미지라고 생각했지만

00:08:31.006 --> 00:08:35.217
현실은 되게 간편하면서도 누구나
따라 할 수 있을 정도로

00:08:35.317 --> 00:08:37.827
쉬운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

00:08:41.109 --> 00:08:44.303
마지막으로 이 이미지를
또 어떻게 촬영했을까요?

00:08:45.259 --> 00:08:50.806
이 방법은 제가 선호하는 방법으로
좋아하는 잡지의 일러스트

00:08:50.831 --> 00:08:56.861
혹은 풍경 사진 등에 배경으로
피사체를 놓고 촬영한 사진입니다.

00:08:58.395 --> 00:08:59.489
이렇게 말이죠.

00:09:02.832 --> 00:09:05.951
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
사진을 촬영해 보면서

00:09:06.051 --> 00:09:09.201
가장 중요하다고
생각했던 것 중 하나인데요.

00:09:09.301 --> 00:09:14.352
이는 비싼 카메라도 배경지도
아닌 바로 조명입니다.

00:09:17.268 --> 00:09:19.181
조명을 켠 상태의 사진.

00:09:20.749 --> 00:09:22.964
그리고 조명을 끈
상태의 사진입니다.

00:09:24.062 --> 00:09:27.146
스탠드 하나 혹은 스탠드
두 개의 역할이

00:09:27.246 --> 00:09:31.337
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감이 오나요?

00:09:34.264 --> 00:09:37.273
지금 저는 이렇게 촬영을
하고 있습니다.

00:09:38.115 --> 00:09:41.804
오픈마켓에서 저렴하게
구입할 수 있는 배경지

00:09:41.904 --> 00:09:46.068

그리고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
스탠드를 이용한 촬영 방법,

00:09:46.168 --> 00:09:49.069
여러분도 한번
시도해 보기 바랍니다.

00:09:51.387 --> 00:09:55.745
이거는 작은 팁인데
다이소에서 판매하는

00:09:55.845 --> 00:10:00.284
아주 저렴한 배경지도
사진 촬영에 있어

00:10:00.384 --> 00:10:03.406
소소한 아이템이 된다는
점 참고하기 바랍니다.

00:10:04.627 --> 00:10:09.042
후보정은 포토샵, 라이트룸
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

00:10:09.142 --> 00:10:12.290
사용할 수도 있지만
처음 블로그를 입문하고

00:10:12.390 --> 00:10:15.661
사진 촬영에 갓 걸음마를
뗀 분들이라면

00:10:15.761 --> 00:10:18.077
참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죠.

00:10:18.804 --> 00:10:22.654
제가 소개해드리는 포토스케이프라는
프로그램을 이용하면

00:10:23.142 --> 00:10:26.349
PC에서도 손쉽게
몇 번의 클릭만으로도

00:10:27.111 --> 00:10:29.558
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00:10:31.237 --> 00:10:35.709
얘를 들어서 이렇게 귀여운 백구가
한 마리 있다고 가정합니다.

00:10:36.184 --> 00:10:41.406
포토스케이프에서 어떻게
이 백구를 보정할 수 있을까요?

00:10:43.743 --> 00:10:48.626
이런 식으로 흔히 모바일에서
카메라 앱을 사용하면서

00:10:48.726 --> 00:10:51.860
필터라는 효과를 많이
사용해 봤을 겁니다.

00:10:52.714 --> 00:10:56.087
포토스케이프 역시 이런 필터
기능을 제공하고 있고요.

00:10:57.047 --> 00:11:01.336
무료라는 점에서 많은 분이
손쉽게 접근해 보기 바랍니다.

00:11:01.948 --> 00:11:05.735
실제 포토스케이프를 사용해 보면서
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

00:11:05.872 --> 00:11:08.109
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00:11:09.273 --> 00:11:13.575
네이버에서 포토스케이프라는
단어로 검색을 한 다음

00:11:14.655 --> 00:11:17.503
해당 소프트웨어를
다운받아 설치합니다.

00:11:18.394 --> 00:11:23.311
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웨어로 누구나
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00:11:23.411 --> 00:11:27.925
전 미리 다운로드로 해당
이미지까지 불러온 상태입니다.

00:11:29.493 --> 00:11:34.133
총 메뉴는 사진 뷰어, 사진 편집,
일괄 편집, 페이지 순으로

00:11:34.158 --> 00:11:38.003
나열되며 저는 사진 편집
혹은 일괄 편집에서

00:11:38.103 --> 00:11:40.010
작업하기를 권하는 바입니다.

00:11:40.858 --> 00:11:46.276
이렇게 작업을 위한 이미지를
사진 추가, 해당 이미지를

00:11:46.427 --> 00:11:53.970
선택해 불러왔다면 밑에 보이는
기본, 필터, 개체 중

00:11:54.070 --> 00:11:58.668
필터를 선택해서 필터 적용
체크 박스에 체크를 한 다음

00:12:01.030 --> 00:12:05.651
내가 보정하고자 하는
기능을 하나하나 클릭해서

00:12:05.751 --> 00:12:07.103
보정하면 되겠습니다.

00:12:07.203 --> 00:12:11.252
일단 이 백구의 하얀 털을
조금 더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.

00:12:12.361 --> 00:12:18.829
뽀샤시 기능에서 줌을 선택하면
조금 더 밝은, 순한

00:12:18.929 --> 00:12:22.205
백구의 이미지를 강조한
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

00:12:22.305 --> 00:12:30.290
이렇게 비네팅이나 필름 효과 같은
기능도 적절히 사용해 보면서

00:12:30.390 --> 00:12:35.574
해당 이미지의 분위기를 조금 더
풍성하게 만들어보기 바랍니다.

00:12:36.049 --> 00:12:42.250
이렇게 보정된 이미지는
모든 사진 저장 내지는

00:12:42.350 --> 00:12:46.651
현재 사진 저장으로
저장을 하면 되겠고

00:12:47.585 --> 00:12:53.273
저장 위치는 본인이 원하는
위치 그리고 이름과 포맷은

00:12:53.373 --> 00:12:56.493
JPG, PNG로 하면 되겠죠.

00:12:57.493 --> 00:13:03.455
저장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
그리고 원하는 콘텐츠에

00:13:03.555 --> 00:13:06.458
적절히 사용해 보기 바랍니다.

00:13:06.558 --> 00:13:10.485
지금까지 블로그 콘텐츠의
이미지를 어떻게 쓰고

00:13:10.585 --> 00:13:15.341
또한 어떻게 촬영할 수
있는지를 간략히 살펴봤습니다.

00:13:15.392 --> 00:13:18.728
여러분이 조금 더
좋은 품질의 이미지를

00:13:18.879 --> 00:13:21.330
손에 넣을 수 있기 바라고요.

00:13:21.430 --> 00:13:25.778
그럼 블로그 브랜딩
강사 성창열이었습니다.

00:13:25.878 --> 00:13:26.803
감사합니다.